

“작품 통해 자신 들여다보는 계기 되길”

‘이인성_아이엠 그라운드’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작가초대전
3월 20일까지... 설치·드로잉 등

서양화가 이인성 작가의 그림에는 인상적인 시그니처가 있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주황색 점’이다. 작가가 설명하는 주황색 점은 모험과 같은 삶 안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자 목표이며 다양한 삶의 가치관이지만, 그의 말처럼, 작품을 보는 사람이 자신만의 시각으로 자유롭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인성 작가가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하정웅미술관에서 2021청년작가초대전 ‘이인성_아이엠 그라운드’ (오는 3월20일까지)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매년 청년작가 한 명을 선정, 작가와 작품 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이인성은 광주미술상, 신세계미술상 대상, 조선훈해의 작가상,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청년작가 선정 등 지역 청년작가들에게 수여하는 상을 모두 받으며 탄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활발히 활동하는 선배들의 뒷 모습을 보며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큰 전시를 열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때론 작업이 불안정한 상황들도 발생하는데 이런 기회를 얻으면 정말 큰 힘이 되지요. 잘해야 한다는 마음도 크고요. 무엇보다 제 작업의 특성 상 한 점



이인성 작가의 설치작품과 회화 작품.



광주시립미술관 2021청년작가초대전에서 작품을 전시중인 이인성 작가.

한 점 볼 때보다는 많은 작품을 한꺼번에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운데, 넓은 전시장에서 그동안의 과정들을 펼쳐놓았으니 관람객들이 좀 더 흥미롭게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1층과 2층 전관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전시에는 평면회화 작품과 대형 설치, 드로잉까지 다채로운 작품이 나왔으며 그의 작품 변화를 알 수 있는 초기작도 나왔다.

단한 자동문의 버튼을 열고 들어서는 1층 전시실에서는 대형설치 작품 ‘그라운드’를 만난다. 경기장에 선 각각의 수많은 사람들이 조각으로 등장하고 평면 작품의 주황색 점이 이번에는 ‘주황색 공’이 돼 전시장 바닥에 자유롭게 흩어져 있다.

“전시제목에 등장하는 ‘그라운드’는 몇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지요. 경기를 하는 그라운드의 의미가 있고요, ‘바탕’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나를 바탕부터, 처음부터 소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순수회화 작업은 결국 자기 탐구에서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전시작 중에는 ‘투우’를 소재로 한 작품들과 일상을 소재로 한 작업들이 눈에 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된 이미지를 자기만의 캐릭터로 끌고 들어와 해석한 후 ‘자기만의 이야기’로 만들어 낸 작품들이다.

“결국 작가는 자기가 처해진 상태와 삶의 과정 안에서 발견한 ‘어떤 것’들을 집어내 작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상황들에 주목하고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코로나라는 상황이 꼭 보이지 않는 울타리에

간혀 경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표현해낼 수 있는 게 투우(사)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작가 작업의 ‘결정적 순간’은 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2011년 북경창작센터 입주였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따로 작업실을 얻어 1년을 더 머물렀던 그는 당시 작업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생각했고, 생각이 바뀌자 새로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세계를 보이는 대로 묘사하던 데서 벗어나 상상과 상징, 은유적인 장면 속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이인성 작품’의 출발이 됐다. 사실상 묘사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언뜻 투박하게도 보이는 그의 그림체도 이때 만들어졌다.

“예전작품이 어두운 부분을 어둡게 보여주는 것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리는 저도, 보는 이들도 불편해 하더군요. 그리스 신화가 요즘 상황을 짐작하고 해석하며 계속 회자되는 것처럼, 오늘과 연결해 해석한 내가 만든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내며 말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작품 변화의 포인트라 할 수 있는 ‘주황색 점’은 화면 전체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자, 꿈을 상징해요.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꺼내놓지 못한 개인의 고민들이기도 하구요. 자신을 조금은 깊게 들여다 보고, 또 사회와 연결고리도 생각해보는 그런 장치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친구를 괴롭히는 말썽꾸러기에 맞서다

윤미경 동화작가 ‘전국 2위 이제나’ 출간

두려움에 맞서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 스스로를 힘아리고 보잘 것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던 어린이가 친구들을 괴롭히는 말썽꾸러기에게 대처하는 법을 그린 장편 동화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푸른문학상, MBC창작동화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윤미경 동화작가가 펴낸 ‘전국 2위 이제나’ (국민서관)는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동화는 제나네 반의 유명한 말썽쟁이 최강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한다. 강현이는 애들이 책을 빌려오면 자기가 먼저 보겠다고 빼앗거나 쓰레기를 쏘고 있으면 강통을 던지며 이것도 주우라고 한다. 보다 못한 제나는 강현에게 맞서 보려 하지만 오히려 놀림감이 되고 만다. 그러나 제나는 몰래 킥복싱을 배우며 복수할 기회를 찾는다.

그러는 사이에도 강현의 횡포는 점점 심해진다. 조금해진 제나는 킥복싱 대회에 나가기로 결심한다. 우승을 하면 강현이가 겁을 먹을까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제나는 상대 선수의



기권으로 전국 2위를 하게 된다. 실력을 보여달라는 친구들의 성화에 못이겨 제나는 강현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강현은 겁을 먹고 울음을 터트리고 만다.

이처럼 동화는 피하지 않고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이야기한다. 작품과 함께 동화 속 그림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김유대 그림작가는 한국출판미술대전 특별상과 서울 일러스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윤 작가는 “친구들이 가슴이 턱 막히고 두려운 순간이 있으면 일단 팔을 뻗어서 편지를 날려 버려! 그리고 나면 두려움의 진짜 모습이 보일 거야”라며 용기를 전한다.

한편 윤 작가는 2012년 황금펜문학상으로 등단했으며 동시집 ‘뽕뽕이다, 달남’, 동화책 ‘토티기가 된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오페라단, ‘마술피리’ 등 출연자 모집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올해 상반기 주요 공연작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2022년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의 출연자를 공개모집한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접수는 16일까지이며, 전국의 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관련 분야 유학 경험자, 오페라 작품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8일 영상 심사과 25일 현장 실연 심사를 거쳐 작품의 주요 배역을 선정한다. 심사 응시 작품은 지방 배역 아리아 1곡, 자유 아리아 1곡 등 총 2곡이다. 공연은 오는 4월 15일과 16일 총 4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2022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은 오페라 작품을 음악극 형식으로 각색해 쉽고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선보이는 공연이다.

공모 접수는 16일까지이며, 공고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시 및 전남지역으로 된 사람 중 광주지역 4년제 음악대학 성악과 재학·졸업자, 관련 분야 유학 경험자, 오페라 작품 경력이 있는 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공연은 오는 5월과 6월 총 13회 광주 소재 학교에서 진행된다.

오디션 최종 합격자는 2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문의 062-412-2507. /전은재 기자 ej6621@

썬스센스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15~16일 문예회관

썬스센스 제2회 정기공연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사진)가 15일 오후 3시~7시30분, 16일 오후 4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극은 음악과 움직임, 사운드가 더해진 색다른 작품으로 절벽과 돌산으로 이뤄진 무인도인 한울섬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오랜기간 무인도로 비어있던 한울섬은 육지의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쓰레기섬이 되었고, 저마다의 사정으로 육지를 떠나 이곳에 몸을 숨긴 사람도 여럿이다.

그러던 어느날 한울섬에 테마파크가 조성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이곳에 살던 이들은 쫓겨나지 않기 위해 섬 곳곳으로 몸을 숨긴다.

이정진이 연출을 맡았으며 배우 정경아·김한빈·신은수·김정규·조소연·천효정·김현주·김예성 등이 출연한다. 이밖에 BaY, 임주신·신태주·임준희·김현재·김혜화·이한별·정세인·김아현·강예찬 등이 참여했다. 티켓은 네이버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전석 3만원. 문의 010-7360-8404. /전은재 기자 ej6621@



일곡도서관, 18~20일 ‘겨울독서교실’ 운영

광주시 북구 일곡도서관이 ‘2022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독서교실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문화체험실(오전 9시30분)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초등 3~4학년 15명으로, 참가 희망자는 북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18일에는 개강식 및 독서교실 안내, ‘자음퀴즈’, ‘친구 얼굴 그리기’, ‘독서퀴즈’가 진행된다. 19일에는 코로나19와 아동 권리 간 연관성 알아보고

‘포토스탠딩 토론’이 예정돼 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어떤 놀이를 즐겨야 할지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20일에는 ‘코로나 시대 어떻게 놀아야 할까?’, ‘월드카페 토론’, ‘피켓 만들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업 자료로 알랭 시세의 ‘우리에겐 권리가 있어’, 레베카 랭스턴 조지의 ‘발랄라 세상을 바꾼 아이’, 자넷 윈터의 ‘그레타 툰베리가 외쳐요!’ 등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062-410-6895. /박성천 기자 skypark@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